

<5.27신흥민주화운동 기념 제2회 글쓰기 대회>
지(智)상 장원 당선작

그 날

3학년
김 * 빈

그 사이트를 처음 접한 건 중학생 때였다. 내가 어렸을 적부터 맛별이를 하시던 부모님은, 방과 후 홀로 집에 돌아와 쓸쓸하게 지내던 외동아들이 안쓰러웠는지, 어느 날 컴퓨터를 사오셨다. 그렇게 인터넷을 접했고, 그 사이트를 만났다. 특정 지역을 차별하거나 고인이 된 전 대통령을 우스꽝스럽게 합성하는 등의 게시물이 주를 이뤘던 그 사이트의 모습은, 사리분별 못 하던 중학생에겐 그저 재밌는 곳으로 받아들여졌다. 나는 매일같이 접속하기 시작했다. 매번 새로운 자극으로 가득했다. 게다가 꽤나 자주 올라오던 시사와 관련된 게시물을 볼 때마다, 마치 내가 깨어있는 시민이 된 것 마냥 뿌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나의 친구들 역시 재미있어했다. 그 사이트에서 알게 된 용어들을 사용하며 친구들에게 농담을 했다. 모두가 웃어주니, 나도 덩달아 기뻐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나를 멈추지 않게 만들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내 농담을 즐거워하는 친구들에 둘러싸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학교에 오기 전날 그 사이트에서,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쓰인 게시물을 보았던 터라, 그 일을 소재로 농담을 했다. 폭동, 빨갱이 같은 과격한 표현을 쓸 때마다 친구들은 재미있어했다. 어미 새가 줄 먹이를 기다리는 아기 새 마냥, 깔깔 웃으며 나를 바라보는 친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농담의 수위를 더 높이기로 했다.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을 성대모사 했다. 아이들은 마찬가지로 배를 움켜지고 웃기 시작했고, 나도 덩달아 신나게 웃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나의 단짝 친구였던, 무슨 이유에선지 요즘 사이가 멀어지게 된 영수가, 내게 주먹을 날렸다. 나도 반격을 가했고, 우리는 담임선생님께서 오실 때까지 싸웠다.

“그래, 너희 대체 왜 싸운 거니?”

우리를 교무실로 데려오신 선생님께서 나지막이 물으셨다.

“선생님, 도민기 이 자식이, 대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광주 민주화운동을 간첩이 선동해서 일으킨 폭동이라고 하고, 희생되신 분들을 빨갱이라고 조롱하고…….”

영수가 분노에 가득 찬 표정으로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다 알겠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쉬시더니, 영수는 교실로 돌려보내고, 내게 말하셨다.

“민기야, 민기가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광주 민주화 운동은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란다. 실제로는…….”

선생님께서선 계속해서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셨다. 하지만 내가 알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다. 나는 건성으로 네, 네, 하며 흘러 넘겼고, 당연히 선생님께서도 나의 무관심한 태도를 알아차리셨다. 선생님께서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시며 말했다.

“아직 민기는 사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보네. 선생님은 정말 안타깝다.”

안타깝다는 선생님의 말에선 진심이 느껴졌다.

“일단 잘못했으니 벌을 줘야겠다. 사서 선생님께는 연락을 해 놓을 테니, 2주 동안 방과 후에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렴. 그리고 혹시 선생님 말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언제든지 찾아와도 좋아.”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나고,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도서관은 평소처럼 한산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멀뚱멀뚱 서있는 나를 본 사서 선생님께서 내게 말하셨다.

“네가 민기구나? 나 수업하고 올 동안, 바닥이랑 책꽂이 정리를 해놓으면 돼. 와서 검사 할

테니 농땡이 부리고 있음 안 된다?”

나는 청소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 이내 봄바람을 타고 5월의 봄꽃 향기가 풍겨왔다. 도서관을 가득 채울 만큼 진한 향기였다.

책꽂이를 정리하던 중이었다. 높은 곳에 있는 책을 꺼내려고 몸을 책꽂이에 바싹 붙인 순간, 발끝에 무언가가 치였다. 공책이 책꽂이 밑에 들어가 있었다. 오래된 모양인지 먼지가 두텁게 쌓여있었고, 종이는 누렇게 변해있었다. 대충 먼지를 털고 펼쳐보았다. 첫 번째 페이지 상단에는 크고 또박또박한 글씨로 ‘1980년’ 이라고 써져있었고, 그 아래엔 사진이 한 장 있었다. 순한 인상이지만 듬직하게 생긴 청년의 사진이었다.

‘이 사람 공책인가? 누구지?’

의문을 가지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1980년 1월 이라는 글씨가 위쪽에 조그맣게 있고, 그 아래에도 무언가 써져있긴 했지만, 번져서 알아볼 수 없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다. 3월, 4월이 지나고 5월이 돼서야 글씨를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을 발견했다. 그리곤 무언가에 홀린 듯, 계속해서 풍겨오는 봄꽃 향기를 맡으며 공책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1980년, 5월 17일 토요일, 날씨 맑음...

2

맑은 날씨다.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버릇은 어릴 때부터 변한 게 없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집 밖으로 나왔다. 집에 있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 애초에 붙지도 않을 대학 시험에 낙방한 채로, 무료하게 집에서 덩굴 거리는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때문이다. 나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있지 않은 곳에 위치한 서점으로 향했다. 아버지와 학창 시절부터 함께한 친한 친구고, 그 덕에 어릴 때부터 자주 뵈게 된 서점 아저씨가 운영하시는 곳이다. 아저씨는 항상 미소로 나를 반겨주셔서, 서점은 갈 곳 없는 나의 휴식처가 되곤 했다.

“아저씨, 저 왔어요.”

“또 아버지 때문이냐?”

“눈치가 여간 보여야 말이죠.”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고, 난 언제나처럼 만화책을 집어 들어 보기 시작했다. 가끔은 좀 있어 보이는 두꺼운 책을 읽어보려고도 했지만, 매번 금방 포기했었다. 아마 내가 썩 좋은 머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그렇다고 읽어보려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마 나의 이런 점을 못마땅해 하시고, 그래서 나를 간혹 무시하시는 것 같다.

만화책을 정신없이 읽다보니, 어느새 해가 중천이다. 아저씨는 잠시 나에게 가게를 맡기고 외출중이시다. 아마 다른 아저씨들과 낮 술판을 벌이거나, 아니면 다방에 가셨을 것이다. 읽던 만화책을 끝내고 다음 권을 집으려던 순간, 서점에 낯익은 얼굴을 한 사내가 들어왔다. 서점 아저씨의 아들인 대학생 형이었다. 쾌활한 성격 때문에, 같이 있으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고등학교 시절 반 1등도 여러 번 했을 만큼 영리하기도 해서, 내심 존경도 하는 형이다.

“어, 정환이 형! 오랜만이네요!”

“오 종열이, 간만이네! 웬일이냐?”

“에이, 알면서. 집에 있기 좀 그렇다니까요.”

오랜만에 본 형은 변함없이 밝았다. 하지만 조금 지쳐보였다. 눈 밑에 조금씩 지기 시작하는 다크서클이 그 증거이다.

“형, 요새 무슨 일 있어요? 피곤해 보이는데, 좀.”

“어, 그런 일이 좀 있어. 나 밥 먹을 건데 같이 먹을래?”

형은 대충 얼버무리고는 화제를 돌렸다. 무언가 숨기려고 한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똑똑한 형이니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였다. 우리는 서점 뒤편에 딸려있는 서점 아저씨네 집에서 밥을 먹었다. 밥을 다 먹은 형은 낮잠을 자기 시작했고, 나는 다시 서점을 보았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읽던 만화를 다 읽어 할 게 없었던 나는, 슬슬 아저씨께서 오실 시간이라 형에게 간다는 말을 하고 집에 갈 작정이었다. 형에게 말하기 위해 집으로 통하는 가게 뒷문을 열려했지만, 순간 멈칫 하였다. 안에서 형의 말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양이었다.

“뭐? 서울에 있는 각 대학 학생회장단이 모두 계엄당국에 연행되었다고? 게다가 계엄군들도 지방으로 내려올 것 같다고? 젠장, 알았어. 금방 그쪽으로 갈게. 다른 친구들한테도 전화 돌려줘. 아, 그리고 내일 대학교 앞에서 할 시위는 예정대로 하는 거다.”

급하게 전화기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고, 형이 문을 열고 나왔다. 몹시 초조해 보이는, 약간의 두려움도 섞인 얼굴이었다. 나는 당황하며 말했다.

“어, 형, 나 지금 가려고, 아저씨한테 말 좀…….”

형은 내 말을 무시하고 빠르게 뛰어나갔다. 평소 같았다면 형의 태도에 화가 났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다. 난생 처음 보는 형의 모습에 이상함과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서점 아저씨는 형이 나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오셨고, 나는 그 길로 곧장 집으로 돌아와, 평소 써오던 일기를 쓰고 잠을 청했다.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악몽을 꿀 것만 같은.

‘아, 이 글은 광주 이야기인가 보다.’

1980년 5월이라는 날짜, 대학생 형이 말했다는 계엄군이라는 단어가 그 증거였다.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확실히 그 사이트에서 본 적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게 여기 있을 수 있지?’

이 기묘한 공책에 호기심을 갖고, 다음 장을 넘겨 읽기 시작했다. 위쪽에 낫익은 날짜가 보였다. 1980년, 5월 18일.

3

악몽을 꿔다. 하늘에서 붉은 빗방울이 쏟아졌고, 곧 광주 시내를 붉게 물들였다. 사방에선 사람들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그 속에서 나는 눈과 귀를 틀어막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악몽 덕분에 잠을 설치, 오늘은 늦잠을 잤다. 일어나 시계를 보니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안 그래도 늦게 일어났는데, 집에만 있으면 아버지가 또 못마땅해 하시겠지.’

외출을 위해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갔다. 거실엔 이상하게도 어머니와 여동생, 아버지가 모여 있었다. 아버지는 매주 일요일마다 주로 집에만 계시니 그렇다곤 해도, 어머니와 여동생은 빈번하게 외출을 하곤 했다. 항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밖에 나가볼 생각이거든, 그러지 마라.”

신문을 보시던 아버지께서 엄격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아버지와 대화하기가 조금 무서웠지만, 호기심과 약간의 반항심으로 아버지께 여쭙보았다.

“왜요.”

말투가 거슬린 모양인지, 아버지는 신문 너머로 나를 슬쩍 찰려보셨다.

“지금 전국에 비상 계엄령이 내려져서, 여기 광주에도 공수부대가 내려와 있다는 모양이구나. 허튼 짓만 안하면 별 탈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집에 있어라.”

비상 계엄령, 난생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다. 서점에 있던 두꺼운 책에서 얼핏 본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다. 아버지는 작게 한숨을 쉬셨다.

“네가 무슨 소린지 알 리가 없겠지. 됐다. 그냥 집에 있으라면 있어라.”

평소 같았다면 한 귀로 흘려 넘겼을 아버지의 무시를, 오늘은 왠지 참을 수 없었다. 나에겐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듯 신문에 열중하시는 아버지와, 그 옆에서 아버지의 태도를 지적하는 어머니,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나를 멀뚱멀뚱 바라보는 다섯 살 배기 여동생 순이를 뒤로하고, 나는 대문을 박차고 뛰어나왔다. 멀리서 아버지의 고함이 들리는 듯 했지만, 무시하고 계속 달려갔다.

언제나처럼 갈 곳이 없었던 나는 서점으로 갔다. 그러나 서점은 휴업이라는 팻말을 걸어놓은 채로 잠겨있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유명한 서점 아저씨였기에, 조금 이상했다. 순간, 사색이 된 표정으로 서점을 급하게 뛰쳐나가던 형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 형이 통화할 때 했던 말을 떠올리며, 형을 만나기 위해 대학교 앞으로 발을 옮겼다.

대학 앞은 수많은 대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반대편엔 무장을 한 군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대학생들은 군인 쪽을 향해 계속해서 무어라고 외쳤다. 잘 들리지 않아 더 가까이 다가 보았다.

“야, 이 나쁜 계엄군 자식들아! 학교에 갇혀있는 우리 학우들 빨리 풀어줘!”

“왜 가만히 공부하던 우리를 탄압하냐!”

저 군인들을 보고 계엄군이라고 하는 모양이었다. 이어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해제하라, 공수부대 물러가라!”

분위기는 점점 과격해져갔고, 몇몇 학생들은 계엄군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계엄군들이 쇠가 박힌 진압봉을 꺼내들더니, 학생 무리에 무섭게 달려들어, 사정없이 가격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엄군의 진압은 점점 강도가 지나쳐졌다. 도망가는 학생들을 끝까지 쫓아가 때려눕혔고, 거친 진압에 항의하던 주변 시내버스에 탄 승객들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계엄군의 계자도 몰랐던 나지만, 무언가 상황이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시위 진압이라고 하기엔, 너무했다.

“야! 넌 또 뭐야, 이 자식아!”

계엄군 한명이 나를 발견하고 소리치며 다가왔다. 난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명만 하면 별 탈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나, 나는 시위대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던 중이었어요!”

군인은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다.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공포가 나를 짓눌러 한 발짝도 땔 수 없었다. 군인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시위대가 아닌데 여기 나와 있을 리가 없잖아, 이 새끼야!”

군인은 말과 동시에 진압봉을 번쩍 들었다. 진압봉 끝엔 이미 누군가의 피가 묻어있는 상태였다. 살면서 처음으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눈을 감았고, 곧 퍽, 하는 소리가 들렸다. 눈을 다시 떠보니, 내 앞에는 군인 대신 서점 아저씨네 형이 서있었다. 군인은 배를 감싸고 쓰러져있었다. 형이 나를 구해준 모양이었다.

“너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거야! 위험한 상황인거 안보여?”

형이 격하게 화를 내며 말했다.

“이 사람은 내가 맡을 테니까, 넌 빨리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잠잠해질 때까지 집에만 있어야 해. 알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도망쳤다. 계엄군이 쫓아오나 확인할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 곳곳마다 계엄군이 튀어나올 것 같아 두려웠다. 멀리서부터 시위소리와 비명이 섞여 들려와, 내 두려움을 고조시켰다.

한참을 달린 끝에, 집 앞에 도착했다. 지금 들어간다면 아버지께 혼날 게 뻔함에도, 대문을 열심히 두드렸다. 그 무서운 아버지마저도 지금은 너무 그리웠다.

“종열아, 종열아!”

어머니는 내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문을 여셨고 나를 다급하게 대문 안으로 끌어당기셨다. 급하게 나오셨는지, 어머니의 발엔 신발이 없었다.

“아이고, 이놈아. 이 난리에 대체 어디를 싸돌아다닌 게냐. 아이고…….”

“죄송해요, 어머니. 아침에 너무 화가 나는 바람에……. 아버지랑 순이는 안에 잘 있죠?”

아버지를 찾는 내 모습에, 어머니는 얼굴이 돌연 하얗게 질리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되물으셨다.

“아, 아버지를 만나서 다시 돌아온 게 아니었니?”

내가 고개를 젓자, 어머니는 급기야 주저앉아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를 내시기 시작했다. 내 안에도 또 다른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설마, 아버지가 설마.

“네 아버지, 너 찾으러 간다고 아까 전에 나가시곤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시다. 필연 야단난 데만 들쭈시고 다닐 텐데. 아이고…….”

어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나는 다시 밖으로 뛰쳐나가 아버지를 찾아다녔다. 해가 지도록 찾았지만, 넓은 광주 시내에서, 계엄군을 피해 다니며 아버지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다. 혹여나 아버지가 먼저 돌아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희망은 대문을 열자마자 깨어져버렸다. 어머니는 홀로 돌아온 나를 보고는 소리 없이 우셨다. 그 덕에 난, 대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나와 오빠, 오빠 하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웃음으로 나를 반기는 여동생 순이에게, 같은 웃음으로 답해줄 수 없었다.

‘계, 계엄군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진압을 했단 말이야?’

충격이었다. 분명 그 사이트에선, 계엄군은 다른 시민들은 건드리지 않고, 그저 평화를 위협하는 시위대만을 단순히 진압했다고만 나와 있었다. 그게 전부인 줄로 알고 다른 자료는 찾아보지도 않았었다. 오직 그 사이트만이 진실인 줄로 알고 있었다.

‘그래, 아닐 거야. 이걸 쓴 사람이 잘못 알았던 거겠지. 그런 걸 거야.’

나는 공책에 적혀있는 것을 부정했다. 하지만 이미 내 마음 속엔,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어떤 답답함과 같은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공책을 다 읽고 나면 왠지 이 감정이 해소될 것 같은 느낌에,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이번엔 바로 다음날, 19일이 아니라, 20일이라는 날짜가 적혀있었다.

어제도 하루 종일 시위가 끊이질 않았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지만, 거리 어딘가에선 계속

‘비상계엄 해제하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다. 나는 아버지를 찾으러 나가겠다는 어머니를 뜯어말리느라 고생을 했다. 나와 의 실랑이 끝에 지치신 듯 주저앉아 하루 종일 통곡을 하셨던 어머니를 달래드리고 싶었으나, 덩달아 울기 시작했던 순이를 돌보느라 그럴 수 없었다. 어머니는 밤이 돼서야 잠에 드셨고, 나 역시 순이를 재우고 잠에 들었다.

오늘은 아침부터 가랑비가 내렸다. 거리는 비 때문인지 잠잠했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창가에 앉아 풀린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괜찮으시냐고 여쭙보아도 대답이 없으셨다. 아마 아버지 때문일 것이다. 어제는 시위대와 계엄군의 충돌을 피하느라 시내로 나가볼 수 없었지만, 오늘은 비가 와서 소강상태였기 때문에 나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아버지를 찾으러 나가보기로 했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는 소리를 듣자마자 밖으로 뛰쳐나가셨다.

“종열이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를 부르며 대문을 여셨다. 대문 밖에는 아버지가 아닌, 처음 보는 젊은 여인이, 그 뒤편 택시 한 대가 서있었다. 여인은 간호복 차림인 것으로 보아, 시내에 있는 병원에서 나온 간호사인 것 같았다.

“저, 여기가 김태일씨 댁이 맞는가요?”

여인은 아버지 이름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께선 낯선 여인의 입에서 나온 아버지의 이름을 듣자마자, 여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절규하듯 물으셨다.

“우리 남편, 우리 남편 어딘는지 알아요? 알죠, 안다고 말해줘요, 제발!”

여인은 잠시 당황한 듯 했으나, 이내 침착하게 말했다.

“김태일씨, 지금 저희 병원에 계십니다. 지금 같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서 이쪽 택시로.”

나와 어머니는 순이를 앞집 할머니께 잠시 맡기고, 병원으로 출발했다. 할머니께선 창백한 어머니와 나의 얼굴을 보시더니, 말없이 어깨를 두드리주시곤 어서 가보라고 손짓하셨다. 대강 무슨 일인지 알 것 같다는 표정이었다.

병원은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평소 한산했던 병원이지만, 오늘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환자들로 가득했다. 아마 어제와 그제동안 계엄군에 당한 시민들인 것 같았다. 병원 바닥 곳곳에는 미처 지워지지 못한 핏방울들이 떨어져 있었고,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여인은 나와 어머니를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이끌었다. 아버지는 머리 반절정도를 붕대로 감싼 채,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계셨다. 여인은 아버지가 의식을 잃으신 상태라고 했다.

“아이고, 이 양반아. 아들 찾아 온대놓고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붙잡고 울부짖으셨다. 나 역시 눈물이 날것만 같았다. 나는 여인에게 물었다.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그저께였어요. 계엄군 때문에 다친 분들이 몰밀 듯 밀려와서 정신없이 일하던 중에, 한 청년이 아버님을 업고 들어왔어요. 아버님은 무언가로 맞은 것처럼 머리에 큰 상처가 있으셨고, 청년도 몸 여기저기에 상처가 많았었죠.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분이 나를 구하다 다치셨다, 꼭 살려야 한다, 라고요. 그 청년, 아마 시위하던 사람이었겠죠. 아버님은 그자를 구하다 봉변을 당하신거고요.”

이야기를 들으니, 정신이 멍해졌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남을 위하는 분이었나 싶었다. 하나뿐인 아들을 언제나 차갑게 대하던 아버지가, 남을 위해 희생할 줄도 아신다니.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게 상상이 되질 않았다. 다시 생각해보니, 사실 나는 아버지를 잘 알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어렸을 때를 제외하곤, 언제나 아버지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정확히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다.

계속 우시던 어머니를 달래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다. 팔이나 다리에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은 사람부터, 아버지보다 심한 상태의 사람까지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고, 우리처럼 가족이 와있는 사람도, 혼자 있는 사람도 있었다. 또는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때, 그 중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 바로 서점 아저씨였다. 나는 아저씨께 다가가 말을 걸었다.

“아저씨!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누구 찾으세요?”

아저씨는 내 물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누군가를 찾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셨다. 아저씨는 며칠 동안 잠을 주무시지 못한 것처럼 안색이 좋지 않아보였다. 나는 아저씨가 걱정이 되어, 어깨를 톡톡 건드리며 다시 말을 걸었다.

“저,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제야 아저씨는 화들짝 놀라시며 나를 보셨다.

“너였구나, 종열이. 너는 여기 무슨 일이냐. 혹시 시위하다가 어디 다친 게냐?”

“아뇨, 사실 저희 아버지가…….”

나는 아저씨께 자초지종을 말해드리고, 아저씨를 아버지가 누워 계신 곳으로 안내했다. 누워계신 아버지를 보고 아저씨는 깊은 한숨을 몇 번 내쉬었고, 어머니께 위로의 말을 전하셨다. 그리고는 잠깐 바람 좀 쐬자며 나를 데리고 병원 밖 벤치로 나가셨다.

“느그 아버지, 분명 깨어날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하여간 그놈, 오지랴 하나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아저씨는 나를 위로하며, 아버지가 오지랴이 넓다는 소리를 하셨다.

“우리 아버지가 오지랴이 넓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저씨는 영문을 알 수 없다는 얼굴로 내게 되물으셨다.

“무슨 말이나니, 너 아버지가 얼마나 남 생각 많이 하는 줄 모르냐?”

나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저씨는 그런 내가 이상하다는 듯, 아버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셨다.

“태일이, 그러니까 네 아버지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선 오지랴 가장 넓은 사람이다. 너희 앞집 사는 할머니 있지? 그 할머니 남편 되시는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 상여 짚어지고 갈 사람이 없어서 큰일이었거든. 자식도 없는 할머니였으니 말이야. 그때 너희 아버지가 발 벗고 나서 가지고, 마을 사람들 끌어 모았다. 그래서 결국엔 상여를 옮길 수가 있었지. 이것 말고도 다른 이야기도 많아. 네 아버지 학교 다닐 때, 학교 지각해서 뛰어가다 말고, 발목 다친 어떤 할아버지 업어다가 병원에 데려다 놓은 일도 있었지. 네 어머니도 네 아버지의 이런 모습에 반해가지고 결혼하신 거잖니.”

전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이런 성격의 아버지가, 왜 나에게만 차갑게 대하셨는지도 통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아저씨께 다시 물었다.

“그럼 아저씨, 아버지는 왜 저를 그렇게 대하신거예요? 언제나 차갑게 대하시고, 가끔 가다 한 번씩 무시하고. 저를 왜 이렇게 미워하셨던 거죠?”

질문을 들은 아저씨는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어서 말씀하셨다.

“네 아버지, 나랑 있을 때 거의 네 얘기만 했다. 주로 네 자랑을 자주 했지. 우리 아들이 체

육대회에서 달리기를 우승했다는 등, 청소를 잘해 선생님한테 칭찬을 들었다는 등.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안타깝다는 얘기를 했어.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준다고 말이야. 게다가 네 그런 모습을 보고 답답한 나머지, 너를 자꾸만 무시하게 된다고 하더구나. 그리고곤 항상 내게 털어놓았단다. 자기도 자기가 왜 자꾸 무시하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네게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아마 중학생 때부터였을 것이다. 중학교에 진학하고부터 성적도 떨어지고, 교우관계도 별다른 이유 없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좌절감을 느낀 나는 매사에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와 나의 사이도 멀어졌던 것 같다.

나는 지금껏, 아버지가 나를 무시한 것은 능력이 부족한 내가 못마땅해서 일거라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난, 능력이 부족한 아들을 감싸주긴 커녕, 쌀쌀하게 대하기만 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듯 상황이 설명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현 듯, 어릴 적 나에게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다.

“종열아, 네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니? 열정을 좇으며 살란 뜻이다. 나는 네가 공부를 못해도, 운동을 못해도 좋다. 그저, 작은 일에도 열의를 갖고 살아가주었음 좋겠구나.”

아버지를 이해하고 나니, 아버지가 보고 싶어졌다. 그리고 어느 샌가, 아버지를 떠올리는 내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저씨께선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일어나면, 꼭 화해 해. 오해도 풀고 말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을 추스른 후에, 아까 아저씨께 물어보려 했던 것을 물어보았다.

“근데 아저씨는 왜 병원에 계셨던 거예요? 아까 보니까 누구 찾으시던 거 같던데.”

내 질문을 들은 아저씨는 갑자기 표정이 굳으셨다. 그리고 머리를 감싸고 깊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하셨다.

“우리 정환이가, 그저께 아침부터 보이질 않아서 잠도 안자고 계속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혹시나 병원에라도 있을까 싶어서, 한번 와 본 참이야.”

나는 그제 대학교 앞 시위에서, 형이 나를 구해준 이야기를 말해드렸다. 아저씨는 내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다시 한 번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녀석,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은 지는 진작 알고 있었건만, 시위까지…….”

이렇게 말하는 아저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다 내 탓이지, 다 내 탓이야. 어릴 때부터 정의롭게만 살라고 키운 내 탓이다. 들리는 말로는 시위하다 잡힌 사람들은 전부 어디로 끌려간다던데, 아이고 정환아, 정환아!”

아저씨는 계속해서 정환이 형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우셨다. 나는 아저씨 곁에 있어 드리는 것 밖에 할 수 없었다. 한참을 우신 아저씨는, 내게 짧게 고맙다고 하시곤 어서 아버지 옆에 가 있으라고 하셨다. 나는 아버지가 누워계신 침대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침대에 기대어 주무시고 계셨다. 지치신 모양이었다. 나는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오후가 돼서야 일어나셨다. 나는 어머니께 순이를 보고 오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위험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고, 나는 괜찮다고, 만약 시위가 일어날 것 같으면 반대편으로 돌아가겠다고 여러 차례 안심시켰다. 어머니도 내심 순이가 걱정되셨는지, 제발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당부를 하며 나를 보내셨다.

밖은 비가 그쳐있었다. 병원을 나와 거리로 가니,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바쁘게 이동하고 있었다. 그중엔 평소 알고 지내던 말 많은 과일가게 아저씨도 계셨다. 나는 아저씨께 물었다.

“아저씨,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세요?”

“어, 종열이구나! 지금 시위하러 가는 참이었다. 전두환이랑 계엄군 그 나쁜 놈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꼴을 볼 수가 있어야지 말이야. 내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끌고 나왔단다. 이정도 모이면 계엄군 자식들도 조금 쫓게 아니니? 하하!”

아저씨는 특유의 호탕한 웃음소리를 내시며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걸어가셨다. 나는 아저씨께 조심하시라고 짧게 인사를 건네고, 반대 방향 길로 서둘러 걸어갔다. 집까지 가려면 오래 걸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가는 길에 계엄군은 만나지 않았다.

한참을 걸려 앞집 할머니 댁에 도착했다. 순이는 이른 잠을 자고 있었다. 할머니께선 내게 어떻게 된 일이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고,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드렸다. 아버지가 다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많이 가슴이 아프신 모양이었다. 나는 모순적이게도, 아버지는 괜찮으실 거라며 할머니를 위로해 드리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앞집할머니 댁을 나서기 전에 시계를 보았다. 벌써 오후 7시가 넘어있었다. 시내로 갈수록, 여기저기서 시위대와 계엄군이 충돌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최대한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다니며 걸어갔다. 그러던 중에, 아까 만났던 과일가게 아저씨를 다시 만났다. 깨끗했던 아까와는 달리, 아저씨의 옷은 여기저기 하얀 가루가 묻어있었다. 아저씨는 수건으로 입을 막고 기침을 하고 계셨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나를 발견한 아저씨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나를 끌고 으스스한 골목으로 데려가 숨으셨다. 그리고 숨을 고르신 후에 말해주셨다.

“내가 아까 시위하러 간다고 했었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었어. 버스 기사랑 택시 기사들도 각자 차를 끌고 나와서 시위에 참여했지. 어제, 시위하다 다친 사람들을 싣고 가려던 기사들을 계엄군들이 끌어내려 때린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참여한 모양이더라고. 하여튼 그랬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분위기가 끓어오르게 되잖니? 버스 한 대가 갑자기 계엄군한테 달려들더라고. 그때부터 계엄군도 최루탄 쏘고 사람 때리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다. 여기 옷에 최루탄 묻은 거 보이지?”

아저씨는 다시 기침을 하시곤, 계속 이어 말하셨다.

“여하튼 나는 그 길로 도망쳐 나왔다. 계엄군 한 놈한테 계속 쫓기다가, 포기했는지 없어졌더라고. 이제 좀 쉬었다가, 방송국 쪽으로 가볼 생각이야. 아까 몇몇 사람들이 방송국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더라고.”

불을 지른다는 말에 나는 놀라서 물었다.

“불요? 왜 불을 질러요?”

“으응, 그 이유야말로 상당히 통탄할만한 일이지. 며칠 동안 광주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잖니? 지금 다른 도시 사람들은 지금 이걸 알고 있을까, 아니면 모르고 있을까?”

나는 당연히 알고 있지 않겠냐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저씨는 분하다는 듯 주먹으로 땅을 내려치고,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다.

“모른덴다! 방송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도해 달라고 해도, 기연히 해주질 않았다는구나. 이 얼마나 잘못된 짓이니!”

이렇게 말하곤 아저씨는 옷을 탈탈 털며 일어나셨다. 그리곤 이제 가봐야겠다며 손을 흔들곤 어딘가로 뛰어가셨다. 나도 곧장 병원에 갔다.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물으셨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리고서, 병원 한쪽에 있는

의자에 앉아 눈을 붙였다.

글을 읽은 내 눈엔 눈물이 살짝 고여 있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심하게 다친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의 감정에 이입을 해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나저나 시위대가 방송국을 저런 이유 때문에 방화했었구나.’

나는 지금까지 시위대의 방송국 방화를, 폭도들이 일으킨 폭동의 일부라고 생각했었다. 그 사이트에 그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페이지를 읽고, 폭동이 아닌 시위대의 눈물겨운 투쟁이었던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니, 마음속 답답함이 한 꺼풀 벗겨진 것 같은 시원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그대로 다음 장을 넘겼다. 그곳엔 21일 이라는 날짜가 적혀있었다.

5

오늘 새벽이었다. 간호사가 밝은 표정으로 급하게 나를 깨웠다. 아버지가 깨어나셨다고 했다. 곧장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갔다. 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계셨다. 나는 아버지 곁으로 갔다. 아버지는 힘겹게 내 이름을 부르셨다.

“종열아, 종열아.”

“네, 아버지. 저 여깁어요.”

아버지는 숨을 한번 고르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종열아, 아버지가 그동안 많이 미안했다.”

나는 당황했다. 깨어나시고 갑자기 하시는 말이 나에게 하는 사과일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아버지는 계속 이어 말씀하셨다.

“밖으로 뛰쳐나간 너를 찾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다, 지금까지 반항이라고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아이인데. 그리고 너를 찾는 동안, 계속 지금까지 내가 너를 대했던 모습이 생각나더구나. 그리곤 잘못됐음을 깨달았지. 부끄러운 일이야, 소중한 아들이 없어지고 나서야 알아차렸다니. 정말로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아버지의 말엔 진심이 느껴졌다. 서점아저씨가 어제 내게 해주셨던 말이 진실이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렇기에 나는,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했다.

“괜찮아요, 아버지.”

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며,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속 고맙다, 고맙다 중얼거리셨다. 나도 아버지의 손을 양손으로 잡아드렸다. 아버지는 이내 잠이 들으셨다.

아침이 되자, 아버지는 잠에서 깨어나시곤, 스스로 머리에 싸여진 붕대를 푸셨다. 나와 어머니는 아버지를 만류하셨지만, 아버지께선 괜찮다고 하시며 집에 갈 준비를 하셨다. 다행히 간호사가 와 이를 저지했고, 옆치락뒤치락 한 끝에 붕대를 단단히 매고 집에 가는 걸로 합의를 보았다. 아버지는 옆에서 이려고 가면 순이가 놀랄 게 뻔하다며 구시렁거리셨고, 나와 어머니는 간호사에게 가볍게 고맙다는 눈인사를 하고 집으로 갔다.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아직 시위가 없어서, 거리는 조용했다.

집에 돌아온 나는 곰곰이 고민해보기 시작했다.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을 찾고 싶었다. 답은 금방 나왔다. 나는 지금 광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했다. 이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 편찮으신 아버지께 여쭙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도통 알아볼 길이

없었다. 그때 정환이 형이 생각났고, 시위가 생각났다. 그리고 답은 오직 시위에 나가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마침 오늘은 공휴일인 석가탄신일이라, 틀림없이 시위가 열릴 것이었다. 나는 부모님께 잠시 바람을 쐬고 온다고 하고서, 시위를 구경하러 나갔다. 위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다. 저번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가만히 있다가 봉변을 당할 뻔 했지만, 이제는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혹여나 계엄군이 진압을 시작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시위대 뒤에 있다가 재빠르게 도망치면 될 일이었다.

시위가 벌어지는 곳은 찾기 어렵지 않았다. 큰 길로 나오니, 수많은 시민들이 계엄령 해제, 민주회복 등을 써놓은 플래카드들을 들고 행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위대는 계엄군을 향해 걸어 나갔고, 계엄군은 계속해서 뒤로 물러났다. 사람들은 어느 때와 같이 걱정적으로 시위를 했지만, 오늘은 특이하게도 얼굴에 기쁨에 찬 표정을 띄우고 있었다. 때마침 과일가게 아저씨를 발견해, 무슨 상황인지 여쭙보기로 했다.

“아저씨, 아저씨! 지금 무슨 일이에요? 왜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있어요?”

아저씨는 호탕한 웃음으로 나를 맞으며, 설명해주셨다.

“계엄군이 말이야, 오늘 정오까지 물러나겠다고 하더구나! 우리 시민들이 드디어 승리한 게지! 간만에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 올라오는구나, 하하!”

아저씨의 말을 듣고 안심을 했다. 나는 계엄군에 맞서 승리한 시민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시위대를 따라 같이 행진했다. 시위대의 구호를 따라서 외칠 때마다, 아저씨가 말한 것처럼 가슴 속이 뜨겁게 북받쳐 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시간이 흐르고, 정오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계엄군은 도저히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곳곳에서 계엄군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결국 계엄군은 정오가 되어서도 물러나지 않았고, 시위는 다시 걱정적으로 변해갔다. 사람들은 차량을 동원해 계엄군을 몰아붙였고, 계엄군은 계속해서 물러나 도청 앞까지 이르고선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나는 일말의 불안감을 느꼈고, 시위대 뒤쪽으로 물러나 한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서 상황을 내려다보기로 결정했다.

‘뭘, 뭘야 저거, 저거 총 장전하고 있는 거야?’

옥상으로 올라가 계엄군을 본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총을 장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위대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계엄군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웬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나는 가슴을 졸이며, 계엄군의 동태를 지켜보았다.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바로 사람들에게 알릴 작정이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도청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계엄군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안 돼!”

시위대를 향해 총알이 빗발쳤다. 그리고 이내, 사람들이 하나 둘 총에 맞아 쓰러지기 시작했다. 계엄군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어떤 남자는, 총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트린 채로 엄마를 찾던 어린 아이를 구하려다 죽었다. 어떤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하신 모양인지, 절뚝거리며 달아나다 총에 맞고 쓰러졌다. 사람들의 피가 쏟아지고 팔다리가 끊어져 나가는 끔찍한 학살 광경에 그만 다리가 풀려버린 여학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연신 비명을 질러댔지만, 곧 그 비명소리는 한발의 총알에 끊기고 말았다. 시민들의 시체는 산을 이뤄갔고, 도로는 시체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피로 붉게 물들었다. 충격을 받은 나는 정신이 아찔하여,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종열아, 종열아!”

잠시 후, 누군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

“아, 아저씨.”

“종열아, 괜찮니? 정신이 좀 드나?”

서점 아저씨였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아저씨가 왜 여기에 계세요, 여기 위험해요.”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이놈아. 네가 이런 곳에는 왜 있는 거야. 아버지랑은.”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시위가 궁금해서……. 아저씨는요?”

“나는 정환이 찾으러 나왔다가, 갑자기 저놈들이 총을 쏘는 바람에 급하게 근처 건물로 올라왔다. 그리고 네가 있었고.”

나와 아저씨는 총소리가 잠잠해질 때 까지 옥상에 머물렀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서야 총소리가 그치기 시작했다. 살짝 고개를 들어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아까보다 더 많은 시신이 늘어져있었다. 계엄군들은 시신을 하나씩 건드려보고 있었다. 아마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모양이었다.

“종열아, 여기도 더 있으면 위험할 것 같다. 얼른 도망가자.”

나는 아저씨를 따라 건물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려갈 때마다 심해지는 피비린내 때문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계단을 전부 내려오고, 아저씨는 고개를 내밀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너도 바로 내 뒤를 쫓아 나와야 한다. 알겠지?”

말을 마친 아저씨는 곧바로 뛰쳐나가셨다. 나도 아저씨를 따라갈 준비를 했다.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아저씨가 쓰러지셨다.

‘아저씨!’

나는 터져 나올 뻔한 비명을 간신히 틀어막고, 곧장 건물 안 구석에 쭈그려 앉아 숨을 죽였다. 총소리가 몇 발 더 들렸다. 아마 아저씨를 향해 쏜 것 같았다. 이윽고 계엄군의 대화가 들려왔다.

“젠장, 이놈은 또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저 건물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당장 수색해!”

계엄군 한명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짝 쥔 손바닥은 금세 땀으로 흥건해졌다. 건물 밖으로 도망친다면 바로 총에 맞을 것이고, 옥상으로라도 다시 올라가고 싶었으나, 온몸이 떨려 움직일 수가 없었다. 꼼짝없이 갇힌 신세였다. 계엄군의 발소리는 계속해서 가까워졌다. 아마 곧 계엄군은 건물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나는 꼼짝없이 총에 맞아 죽을 것이었다.

그때, 또다시 총소리가 들리고는, 들어오려던 계엄군이 쓰러졌다. 이윽고, 계엄군들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밖을 살짝 내다보니, 아까 흩어졌던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돌아오고 있었다. 곧이어 몇 차례의 교전이 벌어졌다. 나는 겁에 질려 귀를 막고 눈을 감은 채로,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를 기도했다.

시간이 지나고, 총소리가 멎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엔 사람들의 비명이 아닌 환호성이 들려왔다. 계엄군이 군용 차량을 타고 신속하게 도청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시민군이 승리한 모양이었다. 기쁨도 잠시, 나는 아저씨가 총에 맞았다는 걸 떠올렸다. 곧바로 뛰쳐나가 아저씨를 흔들며 소리쳤다.

“아저씨, 아저씨! 일어나보세요! 아저씨!”

아저씨는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으셨다. 아저씨의 등 곳곳엔 총알이 박혀있었고, 아저씨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저씨는 분명 돌아가신 것이었다. 나는 시신을 정리하는 시민들이 와 아저씨의 시신을 회수할 때까지, 아저씨를 옆에 앉아 눈물만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니, 대문 앞에 아버지가 서성이고 계셨다. 나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가 펄펄 울었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를 꼭 안아주셨다. 그 후 집으로 들어가 어머니와 아버지께 듣고, 보았던 것을 말씀드리고 용서를 빌었다. 크게 혼내실 줄 알았지만, 두 분 다 오히려 고생했다며 나를 꼭 안고서는 위로해주셨다. 나는 두 분의 품속에서 오늘 겪었던 참상을 떠올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글을 읽는 내 눈에서도 눈물이 한두 방울씩 툭툭 떨어졌다. 계엄군의 학살에 희생당한 시민들 때문이기도 했고, 계속 나의 부모님이 생각나서기도 했다. 부모님이 보고 싶었다.

나는 더 이상 공책을 읽으면서 그 사이트에서 본 것들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 사이트의 내용물은 왜곡된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였다. 이 결심만으로도 마음 속 답답함이 몇 꺼풀은 벗겨져나간 기분이 들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다음 장을 넘겨 읽어 내려갔다. 날짜가 한참 건너뛰어 있었다. 26일 이었다.

6

참사를 겪고 집으로 돌아왔던 나는, 매일같이 써오던 일기도 잊어버릴 만큼, 많은 고민을 했다. 계엄군은 시민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렇게 끔찍한 진압을 하는 것인지, 시민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대해서 말이다. 나는 나의 궁금증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여쭙보았다. 사뭇 진지한 태도로 임하는 나에게,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진지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대답을 해주셨다. 그리고 나는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었다. 계엄군을 움직이는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시민들은 이런 부조리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제 한 몸 불사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투쟁은 숭고하며 정의로운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께 확답을 듣고서, 그날부터 나는 시민군이 점령한 도청에 나가 시민군을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두 분 모두 위험하다고 반대하셨지만, 내 진심어린 결심을 이해하시고는 해가 저물기 전까지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허락해주셨다.

도청 앞은 무장한 시민군들로 가득했다.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지를 물어보려던 찰나, 낮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과일가게 아저씨였다.

“종열아! 요즘 정말 자주 보는구나. 그것도 이런 곳에서! 너도 투쟁에 관심이 있나보구나?”

아저씨께 그동안 내가 겪고, 느꼈던 것들을 전부 말해드렸다. 언제나 장난기 가득한 아저씨도, 이 순간만큼은 진지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그리곤 상황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나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이셨다.

“21일 날, 너도 시민군을 봤다고 했지? 그날 우리는 계엄군을 몰아내고 도청을 사수했단다. 계엄군은 지금 저기 멀리 보이는 대학교에 있고 말이야. 그리고 그날 후로 여러 가지 일을 했지. 저기 보이는 분수대 앞에서 연설도 하고, 시신들 모아다가 관에 안치시켜두기도 하고, 무기고 열어가기도 무장도 하고.”

곧이어 아저씨는 나를 데리고 도청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민군 이야기를 해주셨다.

“저기 저 어린애들 보이지? 재들 고등학생이다. 저 친구들 계엄군한테 억울하게 맞아죽었다고, 발 벗고 나선 기특한 애들이지. 그리고 그 옆에 나이 좀 들어 보이는 양반, 고등학교 선생이야. 계속 옆에서 애들 설득하고 있어. 여기는 우리 어른들이 맡겠다고, 너희들은 아직 어리니까 돌아가라고 말이야.”

아저씨는 이번엔 중년의 남성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나가셨다.

“저 양반은, 집에 가족들 있는데도 뛰쳐나온 양반이야. 아내에, 아들 둘, 딸 하나. 자기 자식들 살아갈 세상인데, 꽃길만 걷게 해줘야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꽃길 한번 만들어보자고 하더라고. 대단한 양반이지.”

다음으로는 시민군 사이에서 이것저것 지시하는, 비교적 젊은 청년을 가리켰다.

“저 청년은 대학생이야. 시위도 여러 번 주도했던, 지도력 있는 학생이지. 그래서 여기서도 도맡아서 사람들을 이끌고 있어. 머리로 좋은데다 군대도 다녀온 친구라서, 사람들도 다들 믿고 있지.”

아저씨는 그 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해 설명해주셨다. 전부 다른 사연에 모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같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21일 날 벌여졌던 계엄군의 학살극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 일을 아냐고? 이제 알긴 할 거야. 제대로 알고 있든, 이상하게 알고 있든 간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21일 날 저녁에, KBS에서 처음으로 광주에 대해 보도가 나갔다고 하더구나. 있는 사실 그대로 말이야. 당연히 곧바로 신군부 세력 놈들이 제재를 가했겠지.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보도가 된다는구나. 광주에서 간첩들과 불순분자들에 의해 폭동이 일어났다고 말이야, 얼어죽일 놈들.”

그날 나는 하루 종일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도청에 나가보았다. 날이 갈수록, 내 마음속에서도 투쟁의 불길이 점점 타올랐다. 그리고 25일 어제, 도청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서점 가게 셔터를 내리고 있던 정환이 형을 만났다. 오랜만에 본 정환이 형은 비쩍 말라있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다. 정환이 형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점 아저씨 일은 아는지 물었다.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되셨는지 아냐고? 으응, 알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뵈고 오는 길이였어. 실컷 울었지. 하지만 아마 아버지도 하늘에서 날 대견하게 내려 보고 계실거야. 그렇다고 믿어.”

형은 다시 눈물이 고인 듯, 눈가를 쓱쓱 닦은 후에 말을 이었다.

“나는 그때, 그러니까 18일 날 너랑 헤어지고 나서 계속 산에서 숨어 지냈어. 계엄군이 내 얼굴을 알아보더라고. 아마 내가 대학교에서 학우들이랑 민주주의에 대해 토론하고, 시위도 계획하고 했던 일들이 들통 난 모양이야. 지금은 시민군이 도청을 사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가게 정리하러 잠깐 내려와 있었어.”

형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형에게 지금까지 내가 겪은 일들을 말해주었다. 이야기를 들은 형은 나를 위로했고, 달라진 내가 기특하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그래서 형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예요?”

“나는 말이야, 계엄군을 피해 산을 넘어서, 다른 도시로 나가볼 생각이야.”

의외의 답변이었다. 형은 당연히 시민군에 가담에 싸우겠다고 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나도 처음에는 시민군과 함께 맞서려고 생각했어. 하지만 왜곡된 사실이 다른 곳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바꿨어.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겠다고 말이야. 나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알릴거야. 광주의 상황을, 계엄군의 학살을, 그리고 우리 광주 시민들의 희생을.”

이렇게 말하는 형의 눈은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다. 이후로 몇 번의 대화를 주고받고, 우리는 서로의 앞날에 행운을 빌어주며 작별인사를 나눴다. 이것이 마지막 만남일거란 것을 서로 알고 있는 듯한 인사였다.

그렇게 어제 형과 헤어진 후, 집에 돌아와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았다. 지금 내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열기에 대해서, 눈을 반짝이며 자신의 방식으로 싸워나갈 형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했고, 결심을 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오늘 저녁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어머니, 아버지. 저 아무래도, 도청에 나가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안 된다며, 나를 붙잡고 울부짖으시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예상했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를 바라보셨다. 나는 우선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말을 시작했다.

“요 며칠 동안,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제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도청에서 계엄군을 기다리는 그들과 함께 맞서 싸우기로요. 저도 압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어머니 아버지를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 하지만 싸워나가야 한다는 거.”

나는 말하는 내내 감정이 복받쳐 올라 눈물을 터트릴 것 같았다. 하지만 꼭 참고 말을 이어 나갔다.

“어머니, 아버지. 시민군들을 만나보면서, 이 투쟁은 결코 단순한 분노에 의한 투쟁이 아님을, 우리나라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장엄하고 숭고한 투쟁임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가는 것을 막으신다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는다면, 저는 앞으로 평생 부끄러움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발, 가는 것을 허락해주세요시오.”

말을 마치고, 정적이 흘렀다. 두 분 다 말없이 나를 쳐다보셨다. 이윽고, 어머니의 입이 떨어졌다.

“가라.”

“네?”

“마음 바뀌기 전에, 언능 가라고.”

어머니는 말을 하시곤, 끝내 눈물을 흘리시며 나를 안아주셨다. 나도 복받쳤던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하고, 울음을 터트렸다. 나와 어머니는 서로 한참동안 울었다. 잘 보진 못했지만, 아버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던 것 같다.

밖은 어두웠다.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기에, 당연했다. 나는 대문을 나서기 전, 부모님을 되돌아보았다. 어머니는 다시 한 번 나를 안아주셨고, 아버지는 내 등을 두드려주셨다. 나는 그대로 큰절을 한번 올리고, 대문을 나서 도청으로 향했다.

걸어가던 중,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들아! 기다려라!”

아버지가 나를 향해 뛰어오고 계셨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아버지는 멧쩍은 듯 웃으며 말씀하셨다.

“우리 아들, 배웅 한번 해주려고.”

아버지와 같이 도청으로 가는 동안, 별 말은 하지 않았다. 배는 고프지 않니, 날이 춥지는 않니, 하는 일상적인 이야기만을 나눴다. 그러던 중, 드디어 도청 앞에 도착했다. 나는 아버지께 간단히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 했다. 그때,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하셨다.

“아들아, 내 아들이어서 참 고맙다.”

나도 환한 웃음으로 보답하며, 말했다.

“저도요, 아버지.”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돌아서는 아버지의 볼을 타고 한 줄기의 눈물이 흘러내렸던 것 같다.

도청에 들어가, 과일가게 아저씨의 안내를 받아 무기를 받고, 마침 방어선을 점검하러 나온 지도자 청년에게 인사를 했다. 청년은 밤늦게 시민군에 지원하러 온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잘 왔습니다! 이렇게 늦은 밤에도 찾아와주시다니,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인사를 마친 청년은 잠시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의에 찬 표정으로, 방어선을 마저 점검하고는 높은 단상위로 뛰어올라갔다.

“시민군 여러분, 잠시만 여기 모여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시민군이 모여들었고, 곧이어 청년은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존경하는 시민군 여러분, 아까 전 밤늦게 시민군에 지원하러 온 이 분을 보고, 저는 광주 시민들이 저희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시민군의 함성소리가 들렸다. 청년은 말을 이어나갔다.

“시민군 여러분, 다들 들으셨겠지만, 곧 계엄군 부대가 도청을 탈환하려 물려올 것입니다. 저희는 틀림없이 싸우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누군가는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투쟁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개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도, 장엄한 전투를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쓴 총알은 민주주의를 향한 벽을 깨부술 것이고, 우리가 흘린 피는 거름이 되어 앞으로 우리의 자식 세대가 살아나갈 수 있을 땅을 일굴 것입니다.”

지도자 청년은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다.

“여러분, 계엄군들은 우리를 향해 폭도라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해온 투쟁을 폭동이라고 폄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는 저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폭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폭동이 아닌, 애국자들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남아 길이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청년은 어느새 결의에 찬 눈빛을 하며 연설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시민군들을 한번 둘러보고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맞서 싸웁시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 손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자유로운 이 땅에서 애국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나라를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로 이끌시다!”

시민군은 또다시 함성을 질렀다. 이어서 내 옆에 있던 과일가게 아저씨가,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 애국자들답게, 애국가나 한번 불러봅시다!”

그리고는 한마음 한뜻으로,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나는 하늘을 보았다. 유독 별과 달이 반짝 반짝 빛나고 있었다.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우리를 향해 축복을 내려주는 것처럼.

나는 이 페이지에 적힌 내용,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다. 내 기억이 맞다면, 분명 다음날인 27일 새벽, 계엄군은 도청을 향해 발포를 시작했을 것이다. 그리고 도청에 있던 대부분의 시민군이 죽고 말 것이었다. 나는 공책의 주인이 살아남았기를 기도하면서, 혹시 하는 마음을 가진 채로, 다음 장을 넘겼다.

“아!”

나는 작은 탄식을 내뿜었다. 다음 장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그 다음 장도, 그 다음 장도 마찬가지였다. 종이를 계속 넘겨보아도, 글씨는 찾을 수 없었다.

나는 혹시라도 무언가 쓰여 있을지 모를 또 다른 페이지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책을 넘겼다. 남은 페이지의 두께가 얇아져갔지만, 새로운 페이지가 나타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길수록, 공책을 읽던 내내 풍겨오던 진한 봄꽃 향기도 멀어져가는 듯 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페이지를 끝내 넘기지 못한 채로, 갑작스럽게 몰려온 졸음에 쓰러지고 말았다.

7

사서 선생님께서 잠든 나를 깨우셨다. 시계를 보니 방과 후 수업 시간이 막 끝나있었다. 나는 오래된 공책을 보지 못하셨냐고 물어보았지만, 사서 선생님께선 도서관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고, 잠이 덜 깬 모양이라며 나를 돌려보내셨다.

집에 간 나는, 컴퓨터로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다시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을 비롯하여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6월 항쟁 등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동안 내가 해왔던 짓들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었다. 그리고 내일 당장 담임 선생님과 영수를 찾아, 꼭 사과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다음날, 나는 바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다. 그리고 어제 내가 보였던 성의 없던 태도에 대해 용서를 빌었다. 선생님께선 갑자기 바뀐 내가 이상하다는 듯 했지만, 나의 진심을 알아주셨는지 곧 괜찮다고 하셨다.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전부 내가 어제 알아본 내용들이었지만, 어제와는 달리 선생님의 눈을 마주치며 주의 깊게 들었다. 이야기를 마친 선생님은 내가 교무실을 나서기 전에, 꼭 영수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방과 후, 영수에게 사과를 했다. 영수는 처음에는 화가 덜 풀린 모양인지, 무심한 태도로 나를 대했지만, 계속해서 사과하는 나의 모습에 곧 마음을 풀고 나의 사과를 받아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어제 심하게 화를 낸 이유를 설명해주었다.

“우리 엄마가 내가 어릴 때부터 줄곧 해주신 이야긴데, 엄마가 아주 어릴 때 엄마에겐 오빠가, 그러니까 나에게는 외삼촌이 있었대. 나이차가 많이 나는 오빠였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시민군에 들어가 용감하게 맞서 싸우다가 돌아가셨다더라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난 언제나 마음속으로 외삼촌을 비롯해 돌아가신 민주 열사 분들을 영웅처럼 생각하고 살아왔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광주 민주화운동을 비하했을 때, 순간적으로 민주 열사 분들의 희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화를 냈던 거야. 너를 먼저 때렸던 건 미안해. 나도 사과할게.”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지.”

우리는 곧장 마음이라도 통한 것처럼, 서로에게 웃는 얼굴로 악수를 건넸다. 소중한 단짝친구를 다시 되찾게 된 순간이었다.

도서관에서의 기묘한 일을 겪은 지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그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 보지 않았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친구들에게 그 사이트에 대한 농담을 하는 것을 멈추었다. 그 대신 친구들에게 조금씩 진짜 역사에 대해 알려주기 시작했다. 다행히 친구들은 거부감 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이런 나의 달라진 태도 덕분에, 한동안 서먹해졌던 영수와의 관계도 날이 갈수록 좋아졌다. 그리고 원래 단짝친구였음을 증명하듯, 금세 예전처럼 붙어 다니기 시작했다. 마치 언제 싸웠냐는 듯이 말이다.

오늘은 학교가 일찍 끝나, 영수가 자신의 집으로 나를 초대했다. 예전에도 몇 번 가보았지만, 이번에 가는 것은 사이가 다시 좋아지고 난 후로 처음 가는 것이라 의미가 새롭다. 오랜만에 찾아간 영수네 집은 변함이 없었다. 벽 쪽에 붙어있는 커다란 소파, 그와 마주보는 TV, 그 TV위에 걸려있는 커다란 영수네 가족 사진. 그런데 오늘만큼은 이상하게도, 평소에 보지 못했던 TV옆 작은 독사진에 자연스럽게 눈길이 끌렸다.

“엇, 이 사람은…….”

그 사진 속에는, 순한 인상이지만 듬직하게 생긴, 낯익은 얼굴의 청년이 있었다.

“왜 그래? 우리 외삼촌 사진인데.”

영수의 말을 듣고, 잠시 동안 머릿속에 몇 가지 것들이 스쳐지나갔다. 그 공책 속 사진과 이야기, 영수의 외삼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독사진.

‘아, 이 사람이구나.’

흠어져있던 여러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간 느낌이었다.

“응,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 착각했나봐.”

나는 영수에게 대강 둘러댄 뒤, 다시 사진을 보았다. 봄날 오후의 따스한 햇빛을 받은 사진 속 청년은, 두 눈을 밝게 빛내며 미소 짓고 있었다.